

예술로서의 일본 근대 번역어의 창작과 번역의 지향점에 대한 소고*

이 주 리 애
(이화여대)

1. 들어가며

예술로서의 일본 근대¹⁾ 번역을 논하기에 앞서, ‘예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서양²⁾의 개념을 번역한 조어(造語)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6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국제학술대회(‘예술의 번역, 번역의 예술’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근대’라는 말 자체도 영어의 ‘modern’, 독일어의 ‘Neuzeit’의 번역어로 고안된 일본 식한자어(和製漢語)이다. 근대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서구열강에 의한 식민지화 시기인 아편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로 보기도 한다. 일본의 근대는 에도시대(江戶時代)의 미일화친조약(1854년)부터 보는 견해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7년)부터 보는 견해가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8%BF%91%E4%BB%A3>).

2) 일본대백과전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봤을 때 하나의 지역을 부르는 호칭으로, 동양과 대비되는 지역이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인도부근을 가리켰었으나, 후에 유럽을 가리

19세기에는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물밀 듯 밀려와 엄청난 양의 개념어가 중국과 일본의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현대인들의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술’은 메이지(明治)시대³⁾에 니시아마네(西周)⁴⁾가 ‘liberal art’를 번역하면서⁵⁾ ‘fine art’의 번역어인 ‘미술’의 개념(회화, 조각, 공예 등 시각적 예술)과 구별되어 시각 예술 뿐 아니라 시, 음악, 연극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예술’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⁶⁾.

19세기말 중국과 일본의 번역 행위는 당시 다양한 서적에 저술된 서양의 개념들을 자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고 자국에 없던 개념은 신조어(新造語)로 만들어내는 창작 행위로, 일종의 예술 행위와도 같았다

키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를 의미하는 동양에 대응시켜 미국을 포함해서 서양이라고 한다”로 되어 있고, 다이지린(大辭林)에 따르면 “유럽과 남북아메리카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https://kotobank.jp/word/%E8%A5%BF%E6%B4%8B-546549#E5.A4.A7.E8.BE.9E.E6.9E.97.20.E7.AC.AC.E4.B8.89.E7.89.88>)

한편, 동양은 21세기 정치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동양’이라는 말은 중국에 있어서 남해로 나가는 선박 항로 중에 동양 쪽을 나타내는 표현에 어원이 있다. 일본에서도 19세기 중반 경까지는 이 중국에 기축을 둔 용어가 보급되어 있었지만 메이지유신 전후부터 orient의 번역어로서 ‘동양’을 적용한다는 용례가 널리 나타나게 되었다. 즉, 유럽을 기축으로 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터키 동쪽 전역을 가리키거나 ‘서양’의 대응어로서 미유럽 사회와는 다른 문화를 갖는 사회·지역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925&cid=42140&categoryId=42140>)

3) 1868년~1912년.

4) 1829년~1897년. 일본 근대의 철학자, 교육자, 계몽사상가.

5) 후쿠다((福田)2008: 136)는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예를 들어 예술(art)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사용되던 기예(技藝:arts)에 해당한다. 즉 어느 시대까지 아마도 18세기까지 관념철학이 등장하기까지 예술은 예술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artist)는 존재하지 않고 장인(artisan)이 존재했으며, 거기에 패트론(patron, gallery owner, buyer)이 붙어서 이른바 기예적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예술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단어로, 본래는 기예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영국왕립미술원으로 번역되는 ‘Royal Academy of Arts’도 생각해 보면 ‘왕립기예원’으로 해야 할 지도 모른다”

6) <https://ja.wikipedia.org/wiki/%E8%8A%B8%E8%A1%93>

고 할 수 있겠다. 법률, 의학, 군사학, 사회학 등의 학술서를 번역하기 위한 조어 외에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당시의 한문읽기 식의 문체가 아닌 일상 구어에 가까운 문체로 번역해야 함을 주장하는 등 문체 개혁에도 번역은 지대한 공헌을 세우게 된다. 한편, 문학에서는 초기에 중역(重譯)과 번안 위주의 번역에서 점차 직역, 의역 등의 번역관을 드러내며(사이토(齋藤)2012: 6), 번역문학으로 발전하고 번역을 통해 문법체계 또한 자리잡아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이라고 하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일본의 번역을 살펴보면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대의 번역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보이고 있는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번역어의 조어 방식

일본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된 건 메이지시대 이전부터이다.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포르투갈어와 네덜란드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는 ‘빵’, ‘카르테’ 등 음차하는 방식으로 일본어 안에 정착하게 된다. 메이지시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학문이 유입되면서 번역이 활발해지는데 이에 대해 후쿠다(2008: 134)는 “서양의 새로운 학문이 수입되면서 어휘의 의미 및 해석과 함께 의의(意義)를 실행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어휘의 육화(肉化), 골화(骨化)가 요구되었으며 번역이야말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최단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센바(千葉 2010)에 따르면 당시에는 ‘권리’, ‘과학’ 등과 같이 주로 2음절 한자어로 번역되었는데, 한자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는 공통어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에서 번역된 어휘가 일본으로, 일본에서 번역된 어휘가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고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해지는 등 번역어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의역어(哲學, 美白, 電腦), 음역어(壕州, 英國, 米國), 신자(新字)창조의 형태로 번역어가 만들어졌으며, 번역어의 한자 조어법은 (1)기존의 한자의 의미는 바꾸지

7) 1835년~1901년. 일본의 무사, 난학자, 저술가, 계몽사상가, 교육자.

않고 조합하는 형태, (2)기존의 한자어의 의미를 바꾸어 사용, (3)기존에 없던 신조어 창작으로 나뉜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인데 ‘과학’, ‘추상’, ‘부동산’ 등과 같이 창작하여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 의미가 바뀌어 새로운 개념이 되거나(關係:consequence→relation) ‘자유’, ‘영업’ 등과 같이 중국의 옛 문헌에서 쓰이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번역어로 만드는 회귀차사(回歸借詞, 회귀번역이라고도 함)가 있다. 그밖에 접사(～주의, ～학, ～적, 超～, 非～)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당시 번역된 어휘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근대 번역어 일례

芸術	宗教	社会	經濟	音樂	眞實	美	主權
統治	人民	狀況	實在	主觀	客觀	歸納	演繹
總合	分解	関心	心理	權利	理性	疎外	伝統
打者	走者	直球	良心	近代	封建	弁証法	実存
主体	体性	構造	危機	市民	哲学	人種	民族
改造	民衆	階級	作曲	公演	科学	抽象	不動産
營業	場合	立場	分析	關係	自由	共和	革命
新聞	聖火	銀行	權威	取消	地球	電報	顯微鏡
洗禮	希望	時間	望遠鏡	紅茶	化学	蒸發	民主
地球	熱帶	冷帶	温帶	原理	救世主	全知	全能
工法	文科	理科	医学	北極	南極	赤道	大学
進化	数学	法律	資本	国会	出口	入口	公司
天国	教会	創世	末世	恩寵	中学	聖餐	命題

(출처:나가야마(長山 1983), 후쿠다(2008), 이한섭(2012), 양세욱(2012a, 2012b), 야나부(柳父 1982))

〈표 1〉과 같이 일부 번역어만 보더라도 근대에 번역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어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 종교, 수학 분야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현대에 이들 번역어가 없이 서양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쓰거나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쓰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풍부한 글쓰기는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2.2. 일본 근대의 번역관

번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 대한 각각의 생각과 태도이며, 번역의 목적,

장르의 제약과 함께 번역자의 생각에 따라 번역 방법도 달라지고 번역의 작업 방식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사이토 2012:2). 번역에서 흔히 원천텍스트지향인지 목표텍스트지향인지에 따라 이국화/자국화, 낮설게하기/익숙하게 하기 등 번역관을 둘러싼 논의를 볼 수 있다. 19세기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는 신조어로, 외래어 그대로 음역을 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었다. 이는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자국민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지, 신조어 역시 자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화되기까지는 매우 낮설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당시의 신조어 번역 전략도 자국화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지식인들의 번역을 위한 노력 덕분에 많은 단어들(정착되어 현대인들은 매우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당시에 신조어였던 어휘들이 지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국어)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외래어와 번역어는 공존하면서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됨으로써 다양하게 어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화인문과학원 편(2015), 사이토(2012), 미즈노(水野 2007), 정병호(2006), 다카하시(高橋 2015), 사토(佐藤 2006)등에서 소개된 일본 근대의 여러 번역자들의 번역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근대 일본 번역자들의 번역관

쓰보우치쇼요 (坪内逍遙:1859-1935)	원본의 의미는 가능한 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 그러나 사상의 차이가 있어 번역이 어려운 부분은 취사 내지는 바꾸는 전략.
와타나베 아쓰시 (渡辺温:1837-1898)	목표텍스트 지향. 기점텍스트 형식을 목표텍스트에서 살려야 하지만 ‘의미를 철저히’번역하기 위해 문(文)을 사(辭)로 하거나 단락을 교체하기도 하며, 이야기의 사정(事情)에 따라 다른 의미의 번역어로 대체하기도 했다.
모리타 시켄 ⁸⁾ (森田思軒:1861-1897)	기점언어 중시.
후쿠자와 유키치 (福沢諭吉:1834-1901)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 평이한 일본어로 번역. 읽기 쉬워야 함.
우치다로안 (内田魯庵:1868-1929)	-일본어인 목표텍스트를 중요시하여 지나친 직역에는 반대. 원문에도 능통해야 하지만 일본어에도 능통하여 원문과 같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일일이 원문의 자구를 따라 가능한 한 언어의 순서도 바꾸지 않고 글자 수도 동일하게 어디까지나 원문대로 번

	<p>역하고자 한다.</p> <p>-번역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함.</p> <p>-오역 비판에 대한 비판. 일본어답게 하기 위해 원문의 증감을 시도하면 바로 오역이라는 비판이 들어오는데 오역이 없는 번역이 가치있는 번역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음.</p>
<p>모리모가이 (森鷗外:1862-1922)</p>	<p>원천텍스트, 목표텍스트 모두 중요하다고 봄.</p> <p>-번역할 때 일본 고유의 개념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이국적인 느낌을 남기고자 한다.</p> <p>-원문과 비교해서 번역문에서 더해지거나 감해진 데 대한 비판은 나에게서는 무의미하다.</p> <p>-어쩔 수 없을 때는 번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한 원문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한다.</p>
<p>후타바테이시메이 (二葉亭四迷:1864-1909)</p>	<p>-외국 문장을 번역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그 어조를 살리는 일.</p> <p>-외국문을 번역할 때 의미에만 중점을 두면 원문을 훼손시킬 수 있다. 원문의 음조(音調)를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어 쉽표, 마침표 하나 소홀히 하지 못하였으며 원문에 쉽표가 세 개 있으면 번역문에도 세 개가 있어야 하는 식으로 원문의 운율을 중요시하였다.</p> <p>-문체란 글쓴이의 사상(詩想)이 담겨 있는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심신이 원작자와 동화되어 충실하게 그 사상을 옮겨야 하며 이는 실로 번역의 근본적 필요조건이다.</p>
<p>구사노시바지 (草野柴二: 1875~?)</p>	<p>‘번역문의 독특한 맛’을 강조.</p> <p>-각 원작자의 어조를 번역의 전체적인 색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패러프레이징’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번역방법이 없을 때 이야기이고, 가능한 한 충실한 번역을 추구한다. 지나치게 ‘일본화’된 번역은 번역이 아니며 번역다운 맛이 있어야 한다.</p>

8) 모리타 시켄은 번역 방식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했다.

- 本旨: 기점언어와 목표언어에 모두 존재하면 대응 번역. 기점언어에만 있으면 기점언어식으로 번역
- 誤り: 기점언어와 모두 있는데도 기점언어식으로 번역.
- 權宜: 기점언어만 있어서 기점언어식으로 번역하려고 하나, 어색할 경우는 의미만 취하여 번역.
- 意義通辯: 기점언어의 특색을 무시한 채 목표언어식으로만 번역.

(사이토 2012)

당시의 번역관을 크게 나누면 원천텍스트를 중요시했는지, 목표텍스트를 중요시 했는지에 따라 모리오가이처럼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혼용하기도 했다⁹⁾. 일본 근대의 번역은 주로 계몽사상가, 의학과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스스로 창작활동을 하는 문학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본 근대 번역의 대가인 모리타 시켄과 같이 신문기자 출신의 전문 번역가도 있었다. 전문서적의 번역은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많은 양의 신조어를 낳게 되고, 문학번역을 통해서도 의역, 직역, 원천텍스트 중시, 목표텍스트 중시, 문체와 어조를 중시한 번역, 독자적 번역 등 다양한 번역관이 등장하게 된다.

2.3. 근대 번역어의 정착

현대에 쓰이고 있는 번역어는 일반화된 어휘로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어휘로 사용되다가 살아남게 된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 야나부(1982), 최경옥(2017) 등에 소개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서양 원어와 정착된 번역어의 예

원어	여러 번역 대안	정착된 번역
society	교제하다, 모이다모임, 집회동료, 교제동료, 친하게 지냄, 교제나카마, 렌추, 사추동료, 조합, 동참자, 교제, 동아리, 인간교제	사회
right	정직, 정리, 통의, 달의, 권	권리
Freedom	자주, 자재, 불기	자유
individual	혼자, 인민각개, 일개인민, 인민, 독일개인, 일개인	개인
photograph	은판, 사진화상, 지화	사진

9) 한국의 근대 번역자들의 번역관도 다양하였다. 김억(1896~?)은 번역은 창조이며 진정한 번역은 의역이라 했으며, 양주동(1903~1977)은 중역(重譯)을 비판하고 원작을 허물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의역을 권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인섭(1905~1983)은 번역을 통해 국어가 더욱 강해지고 문학의 영역도 넓어진다고 했으며 신조어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진섭(1903~?)은 번역에서 외국어 사용은 무방하고 원작의 형태대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할 수 있다고 했다(테레사 현(김혜동 옮김)2004; 김옥동 2014; 이화인문과학원 편 2013).

1880년대 후반에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고 제1차 서양지향기를 거쳐 번역 한자어가 유행하면서 언문일치가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원어를 그대로 차용할 것인지 번역한자어를 쓸 것인지 대립(police vs 巡査, telegraph vs 電信 등)이 있었으나, 대체로 번역한자어가 살아남았다. 한국에서 번역어가 정착되기까지는 일본과 조금 시차가 있었다. 일본이 대략 1890년대 이후에 많은 단어들이 정착하였고 한국은 1905년에서 1910년경 정착해 갔다. 일본의 경우는 1860년대에 많은 개념들을 수입하면서 20~30년에 걸쳐 어떠한 어휘가 적절한지 여러 가지 시도하고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서서히 특정 단어가 살아남는 방향으로 흘러간 반면, 한국은 이미 1890년대 일본에서 시민권을 얻은 단어가 들어와서 10년~20년에 걸쳐 정착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최경옥 2007). 이렇듯 하나의 개념이 번역되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며,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여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학문의 발전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3. 언론을 통해 본 현대 번역의 모습

19세기 이후 20세기로 접어들어 외래어에 대한 번역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외래어를 그대로 음역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¹⁰⁾.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줄임말, 신조어(포비족, 오포세대 등)가 양산되고 있으나 번역어로서의 신조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화 제목도 음역하여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번역을 통해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 어휘가 확장되던 근대와는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물론 번역문체가 간혹 대중화되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소설가 온다 리쿠(恩田陸)의 『私と踊って』(2015)¹¹⁾의 한국어 번역을 통해 한때 ‘새오체’가 SNS 등에서 유행하기도 했다¹²⁾. 이는 번역가가 원작에 등장하

10)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센터’, ‘쇼’, ‘컴퓨터’와 같은 외래어도 ‘中央(center), 表演(show), 電腦(computer)’ 등 한자어로 번역된 것이 많다.

11) 온다리쿠(2015) 『나와 춤을』(권영주 옮김). 비체

12) <http://news.zum.com/articles/26824382>

는 강아지의 어색한 말투를 한국어로 고안하여 내놓은 번역체로 인기를 끈 경우이지만, ‘왈도체13)’ 등 오역이나 어색한 번역투를 비꼬는 듯한 말도 있다. 한편, 번역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어가 문장에 빈번히 등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1) リラクシーかつスタイリッシュな大人のセットアップ。緩急あるシルエットも美しい。モダンな小物使いが小気味よいスパイスに。
(GLOW.2016년 7월호 p57)

예2) 사이트로 가면 다운재킷에서 데님까지 10종류의 아이템이 나타난다. 이 상품들이 활인 대상이다. 그중에서 만약 가격을 낮추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사진을 클릭한다. 그러면 그 아이템의 정보와 해시태그인 #luckycounter가 임베드된 트위터 화면이 나타난다. 이것을 포스팅하면 그 상품이 좀 더 저렴해지는 구조다. 당신의 포스팅을 보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wow한국경제TV.2016년 6월 16일)

패션지를 보면 예1)과 예2)와 같이 ‘リラクシー, スタイリッシュ, シルエット, モダン, スパイス, セットアップ, 다운재킷, 데님’과 같이 의복의 묘사나 의복의 종류 등이 외래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패션지의 경우가 특히 두드러진데, 이러한 문장을 ‘보그체14)’ 문장이라고 해서 외국어가 문장 안에 다량 쓰이는 경우를 빗대기도 한다. 예2)와 같이 패션 용어 외에도 ‘클릭’, ‘해시태그’, ‘임베드’, ‘포스팅’ 같은 인터넷이나 IT 관련 용어들도 번역되지 않은 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3311.html

- 13) 외국 PC게임 ‘마이트 앤 매직 6’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 게임의 한글판 번역이 엉망인 탓이다. 왈도라는 캐릭터는 “안녕하신가! 힘세고 강한 아침, 만일 내게 물어보면 나는 왈도”라며 등장한다. 원문(Hello there! Mighty fine morning! If you ask me, I’m Waldo)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안녕, 정말 상쾌한 아침이군! 나는 왈도라고 하네” 정도가 알맞다. (조선비즈 2016.1.26.)
- 14) “이번 시즌 잇아이템인 버건디 컬러의 립스틱을 바르고 촉촉한 립밤을 덧발라 글로시하게 마무리한다.” 영어 단어를 섞어 쓴 말투는 ‘허세 말투’로 취급하면서 ‘보그체’라며 놀림을 당한다. 유명 패션지 보그의 이름이 붙었다. 패션계에서 일하는 이들이나 패션잡지 기자들이 많이 쓰는 말투인 탓이다. (조선비즈 2016.1.26.)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의 IT관련 회사의 CEO인사말의 예를 보겠다.

예3) 真のエクセレント・カンパニーを目指して

今、IT業界は革命の時代に突入しています。
2000年初頭に起こったパラダイムシフトにより様々なキャズムが取り払われ、各社のコアコンピタンスがコモディティ化された結果、先の見えない不況が我々の眼前に覆いかぶさってきています。LIGは自社の強みでもあるファクトベースにおけるブルーオーシャン戦略、いわゆるボトルネックを排除したベネフィット創出事業にフルコミットする事で、安定的な成長を続けています。(주식회사LIG 8기 CEO인사말)¹⁵⁾

이에 대해 한 블로거가 위의 인사말이 난해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외래어 부분을 번역하여 글을 다듬었다.

예4) 真の優秀な企業を目指して

今、IT業界は革命の時代に突入しています。
2000年初頭に起こった劇的な変化により様々な障害が取り払われ、各社の核となる事業의 差別化가 失われた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結果、先の見えない不況が我々の眼前に覆いかぶさってきています。LIGは自社の強みでもある事实に基づき、競争のない未開拓市場、いわゆる障害や問題が発生した原因を排除した利益創出事業に全力で頑張る事で、安定的な成長を続けていきます。

(<http://jobmee.net/company-message>)

예4)와 같은 블로거의 수정으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전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외래어를 다용함으로써 해당 업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난해한 문장이 되기도 한다.

15) <https://liginc.co.jp/company/message/year/2014>

4. 미래 번역의 지향점

4.1. 중역 다시 보기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처럼 근대 번역어의 성립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기회가 없이, 이미 만들어진 번역어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번역이 들어온 경로로, 서양 선교사와 개화기 지식인들의 직접 번역 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의 번역서를 또 다시 이중, 삼중으로 번역하는 중역이다(한정은 2015). 중역의 흔적은 소설 제목이나 영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 소설의 경우는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 1850-1893)의 ‘여자의 일생(원제 프랑스어:Une vie, 영어:A Woman’s Life, 일본어:女の一生)’, 루시 모드 몽고메리(Lucy Maud Montgomery:1874-1942)의 ‘빨간머리 앤(원제영어:Anne of Green Gables, 일본어:赤毛のアン)’, 쥘 베른(Jules Verne:1828-1905)의 ‘15소년표류기(원제 프랑스어: Deux ans de vacances, 영어: Two Years' Vacation, 일본어:15少年漂流記)’와 ‘해저 2만리(원제 프랑스어: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영어: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 일본어:海底2万里)’ 등을 들 수 있다. ‘해저 2만리’의 번역은 중역의 문제 뿐 아니라, 오역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league’는 ‘mile’과 거리가 대략 비슷하고 이는 일본의 ‘리’와도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万里’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一里’는 한국의 ‘10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저2만리’가 아닌 ‘해저20만리’가 옳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母をたずねて三千里¹⁶⁾’가 국내에서 ‘엄마찾아 삼만리’로 번역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밖에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1824년-1895년)의 ‘춘희(원제:La Dame aux camélias),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Frances Hodgson Burnett, 1849년-1924)의 ‘소공자(원제:Little Lord Fauntleroy)’와 ‘소공녀(원제:A Little Princess)’도 각각 일본의 번역 제목인 ‘椿姫’, ‘小公子’, ‘小公女’의 중역이다. 생텍쥐페리(Saint Exupery,

16) 에드문도 데 아미치스(Edmondo De Amicis, 1846-1908)의 소설 ‘쿠오레(원제:Cuore)의 삽입된 단편 동화 ‘아페니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원제:Dagli Appennini alle Ande)’를 일본에서 각색하여 1976년 후지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였으며,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방영된 바 있다.

1900-1944)의 ‘어린 왕자(원제:Le Petit Prince)’도 ‘Petit’가 영어로는 ‘Little’이며, 한국어로는 ‘어린’ 외에 ‘작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린’으로 번역되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어 제목 ‘幼い王子’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서옥식(2013:368)에 따르면 ‘Prince’도 ‘왕자’가 아니라 ‘군주’가 맞다. 영화의 경우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원제 영어:Bonnie and Clyde, 일본어:俺たちに明日はない)’, ‘내일을 향해 쏴라(원제 영어: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일본어:明日に向かって撃て!)’, ‘람보(원제 영어:First Blood, 일본어:ランボー)’ 등을 중역의 예로 들 수 있다. 소설은 근대의 외국 소설이 주로 중역되었고, 영화는 80년대까지도 외국 영화의 일본어 타이틀이 그대로 중역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이주리에 2014:159). 근대 소설은 현대까지도 꾸준히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되고 있지만, 제목은 중역된 번역 그대로이며, 대부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미 중역으로 익숙해진 제목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으나,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소설 ‘폭풍의 언덕(원제:Wuthering Heights)’이 제목의 오역 논란이 있어¹⁷⁾ 원제 그대로 여러 출판사에서 ‘위더링 하이츠’라는 제목으로 재출간¹⁸⁾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지금이라도 한국 번역자의 판단에 따른 재번역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⁹⁾.

4.2. 개념어 번역의 시도

개념어는 일대일(一對一) 대응이 아닌 일대다(一對多)대응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ociety’는 상황에 따라 ‘교제’, ‘모임’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회’로 번역하고 정착하기까지 여러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으나(양세욱 2012; 야나부 1982), 1989년에 개봉되고 25년여 만인 2016년에 국내에서 다시 개봉된 영화 ‘Dead poets society’가 ‘죽은 시인의 사회²⁰⁾’로 번역된 것에 대한

17) 서옥식(2013:430)

18)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query=%EC%9B%8C%EB%8D%94%EB%A7%81+%ED%95%98%EC%9D%B4%EC%B8%A0>

19) 일본의 영문학자인 사이토 다케시(齋藤勇:1887-1982)가 ‘嵐カ丘’로 번역한 후, 지금까지 같은 제목으로 번역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오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잘된 번역으로 보기도 한다(<http://1000ya.isis.ne.jp/0125.html>).

오역 논란이 있었듯이, 여전히 ‘society’의 번역은 어렵다. 이렇게 근대에 타국에서 번역된 개념어가 한자어로 정착되어 한국에서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해당 전문 분야에서 지적하기도 한다. 전지영(2013)에서는 음악 용어를 예로 들어 그 적절성에 대해 논하였다. ‘작곡’, ‘음악’, ‘공연’ 등의 단어가 당시 조선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역어이며, ‘공연’보다는 ‘연(演)’, ‘연행(演行)’이 적합하고 ‘음악’도 ‘음’과 ‘악’은 분리하여 번역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개념어에 대한 번역어를 창조할 기회가 없었던 한국이 지금이라도 한국의 개념이 반영된 번역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이후로 정지된 듯한 개념어에 대한 사고(思考)를 각계에서 전문가들이 재조명하여 번역어로서 적합한지를 논의함으로써 각 분야의 깊이 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4.3. 순화어 찾기 노력과 번역

근대기에 그토록 번역어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래어 범람에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국립국어연구소(國立國語研究所)의 외래어 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작성한 ‘言い換え提案’²¹⁾(176개)을 현재 인터넷 상에 공개 중이다. 한국은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 제안을 게시판에서 받고 있고²²⁾ 현재 2만 건이 넘게 올라와 있다²³⁾. 또한, 국민참여형 우리말 다듬기²⁴⁾를 개설하여 2004년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563건의 단어 제안이 등록되었다. 일본과 다른 점은 일본은 외래어를 순화하자는 것이고 한국은 한자어도 순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순화어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²⁵⁾에 따르면 “불순한 요소를 없애고 깨끗하고 바르게 다

20) 일본 제목은 ‘今を生きる’이다.

21) http://pj.ninjal.ac.jp/gairaigo/Teian1_4/iikaegotou_dic.html

22) 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List.do?mn_id=34

23) 일본어의 ‘言い換え提案’과 한국어의 ‘순화어’의 개념이 동일하지는 않다.

‘言い換え提案’은 일본에서 범람하고 있는 서양식 외래어를 일본의 한자어나 고유어로 번역해 보자는 취지이고, 한국어는 서양어뿐 아니라 일본어 번역투를 포함해서 한국어 표현을 고안해 보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번역을 고민하지 않은 어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안해 보자는 공통적인 취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비교 및 제시해 보았다.

24) <https://malteo.korean.go.kr/revise/reviseExhibitionView.do?menuCd=C300>

듬은 말.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순화한 말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다듬은 말의 목록을 일부 보도록 하겠다.

〈표 4〉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예시

번호	순화대상어	원어	순화어
1	~ 게이트	gate	~ 의혹사건
2	가드닝	gardening	생활 원예
3	가십거리	gossip거리	입방아거리
4	갈라쇼	gala show	뒤풀이공연
5	공식 스토어	公式 store	공식 매장
6	교례회	交禮會	어울모임
7	구즈, 굿즈	goods	팬 상품
8	그라피티	graffiti	길거리그림
9	그룹 엑서사이즈	G.X.(Group exercise)	그룹 운동
10	그룹홈	group home	자활꿈터

〈출처: 국립국어원 누리집²⁶⁾〉

<표 4>의 예시를 보면 대부분이 외래어이다. 순화어를 분석해 보면 ‘생활+원예’, ‘공식+매장’처럼 이미 있는 한자어의 조합이나 ‘뒤풀이+공연’과 같이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조합이 많고, ‘어울+모임’, ‘입방아+거리’ 등 순우리말로 조합한 것도 있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言い換え提案’도 한국의 순화어 형태와 유사하다.

25)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6) <https://malteo.korean.go.kr/revise/reviseExhibitionView.do?menuCd=C300>

〈표 5〉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言い換え提案’의 예시

번호	調査語	言い換え表現
1	アーカイブ	保存記録
2	アイデンティティ	事故認識
3	アイドリングストップ	停車時エンジン停止
4	アウトソーシング	外部委託
5	アカウントビリティ	説明責任
6	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	実行計画
7	アクセシビリティ	利用しやすさ
8	アクセス	接続
9	アジェンダ	検討課題
10	アセスメント	影響評価

〈출처: 國立國語研究所²⁷⁾〉

한국, 일본 모두 지금은 근대의 번역어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던 어휘의 창작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사용하던 외국어 원어의 음역이 지금까지 제안한 다양한 순화어로 정착하려면 형태적인 문제와 낱말의 길이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최형용 2012), 지금은 집단지성으로 수많은 대중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대에 소수의 지식인들이 자국에 없는 개념어를 창작하고 멀리 중국에서 쓰이던 단어까지 찾아내는 등의 노력에 비하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최형용(2012)에 따르면 순화대상어와 순화어 사이에는 형태 뿐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 ‘의미의 등가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번역의 ‘등가’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번역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이라고 되어 있다. 순화어 작업은 결국 ‘적절한 번역어’를 찾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순화어 노력은 어찌 보면 번역 연구자들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하는 번역이 선불리 이루어지거나 숙고하지 않은 신속한 번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접하는 대중과 번역자, 연구

27) http://pj.ninjal.ac.jp/gairaigo/Teian1_4/iikaegotou_dic.html

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근대에는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넘쳐났고, 당시 영어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기에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어휘로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다. 현대인들은 근대에 비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영어가 많이 섞여 있으면 이해가 쉽지 않다. 패션계, 의학계, IT계 등에서는 외국 어휘를 그대로 씌으로써, 또 법률계 등에서는 난해한 한자어를 섞어 씌으로써 특정인들만 알아듣는 문장을 구사하는 등 번역하지 않는 문제점은 근대의 번역 과정과 노력을 거울삼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5. 나오며

19세기부터 활발해진 서양어로부터 동양어로의 번역의 역사는 근 1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번역 자체가 발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외국어에 익숙해지면서 굳이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뚝으로써 원어 그대로를 느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시간을 들여 실력 있는 번역자로 하여금 좋은 번역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계번역이나 검증이 안 된 저품질의 빠른 번역이 난무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통해 하나의 단어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 생산해낸, 마치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듯 정성을 들였던 근대 번역 시대에 비해 오히려 번역 문화는 퇴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근대에는 어떻게 해서든 서양 문물을 배워 자국의 것으로 소화해 냄으로써 발전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면, 현대는 마치 번역을 포기하기라도 한 듯, 그대로 받아들여 굳이 자국화하지 않는 양상이다. 이미 익숙해진 번역어에 대한 맹목적 사용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낯이 쏟아져 들어오는 여러 장르의 새로운 용어들은 굳이 번역하지 않는 것이 세계화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 비해 한국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한류’와 같이 일본에서도 ‘ハン류’로 음역되어 단어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듯이 음역을 통해 세계화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의 개념을 자국에 익숙한 형태로 번역했던 기존의 노력과 같이 자국의 개념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외국어로의 번역도 번역자가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근대에 성립된 번역어는 당시 번역자들의 이해 부족에서 잘못 성립된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나, 현대는 인터넷의 발달로 오히려 번역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졌다. 하나의 개념을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 결과물 못지 않게 번역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 분야의 이해를 높여 지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예술로서의 번역은 원문의 예술성을 잘 살린 좋은 번역임과 동시에 생각하고 다듬고 수정해 나가고 숙고하는 번역 행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자국에 없는 개념을 자국의 언어로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노력이 다시 회복된다면 잊혀졌던 우리말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번역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자국의 글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번역도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본 근대의 번역어 창작을 개괄하면서 현대 번역의 문제점을 기술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보다 더 각각의 주제에 집중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과제로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 및 번역 현황, 신조어와 차용어의 한일 양상을 밀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조 (2012) 「한국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번안」 『한국근대문학연구』 (26): 7-39.
- 김동기 (2003) 「일본의 근대와 번역」 『시대와 철학』 14(2): 263-290.
- 김병철 (1998) 『韓國現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
- 김성은 (2014) 「근대 사상 번역과 한자·한일 기독교 문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45: 297-314.
- 김육동 (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 김진희 (2011) 「1920년대 번역시와 근대서정시의 원형 문제」 『비평문학』(42): 117-149.
- 김해란 (1997) 「[번역론단] 번역의 예술성-귀화법과 이식법에 대한 견해」 『중국

- 조선어문』 (6): 34-35.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2015) 『근대번역과 동아시아』, 박문사.
- 서옥식 (2013) 『오역의 제국-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 도서출판 도리.
- 양세욱 (2012a)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인간 환경 미래』 (9): 63-91.
- 양세욱 (2012b)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의 역할-중국의 사례」 『새국어생활』 22(1): 37-51.
- 양일모 (2010)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 『동양철학』 33: 173-198.
- 이건상 (2004) 「日本の 近代化에 영향을 끼친 翻譯文化 - 그 형성 과정과 의의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58: 443-456.
- 이경구, 박노자, 허수, 박명구, 이행훈, 임경화, 양일모, 이해경, 순장, 요아힘쿨즈 (2012)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 李寶暻 (2002) 「동서문명의 조우(遭遇)와 근대 중국 지식인의 번역관」 『중국현대문학』 (22), pp.515-543.
- 이주리아 (2014) 「한 일 영화 포스터의 제목 및 비주얼 고찰 - 멜로 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153-175.
- 이주리아 (2016) 번역 예술로서의 창작-일본근대기의 번역관을 살펴보다-」 『2016 GST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예술의 번역, 번역의 예술』, 254-264.
- 이한섭 (2012)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 - 일본의 사례」 『새국어생활』 22(1): 23-35.
- 이한섭 (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화인문과학원 편 (2013) 『번역과 교섭-근대인문지식의 형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영광 (2015) 「1960년대 창작과비평 담론과 번역」 『동서인문학』 50: 39-75.
- 전은경 (2012) 「근대 계몽기 번역문학과 독자층 연구」 『우리말글』 56: 765-802.
- 전지영 (2013) 「근대의 코드, 번역의 함정-전통예술 관련 번역어의 문제」 『한국음악사학보』 51(단일호): 97-118.
- 정병호 (2006) 「근대일본의 예술적 번역사상의 탄생과 수사학」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1-14.

- 정혜영 (2015) 「번역과 근대적 문체의 형성:1918년부터 1921년까지 김동성의 번역 및 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9: 355-383.
- 최경옥 (2005)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 문명 수용과 번역」 『번역학연구』 6(2): 189-208.
- 최경옥 (2007)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權利’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83-299.
- 최경옥 (2017)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비교일본학』 39: 415-432.
- 최주한 (2013) 「‘번역된 (탈) 근대론’으로서의 [무정] 연구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287-313.
- 최형용 (2012) 「순화어의 형태미론적 고찰 -국민 참여형 순화어 299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6: 127-159.
- 한정은 (2015) 「근대 개화기 번역의 세 가지 경로에 관한 고찰」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7(1): 237-256.
- 佐藤美希 (2006) 「翻訳序文に見る明治の英文学翻訳」 『通訳研究』 6: 49-68.
- 齊藤美野 (2012) 『近代日本の翻訳文化と日本語: 翻訳王・森田思軒の功績』, ミネルヴァ書房.
- 千葉謙悟 (2010) 『中国語における東西言語文化交流: 近代翻訳語の創造と伝播』, 三省堂.
- 高橋修 (2015) 『明治の翻訳ディスクールー坪内逍遙・森田思軒・若松賤子』, ひつじ書房.
- 田中浩 (1988) 「福沢諭吉と加藤弘之:西洋思想の受容と国民国家構想の二類型」 『一橋論叢』 100(2): 284-306.
- 馮天瑜 (2005) 「中国語, 日本語, 西洋語間の相互伝播と翻訳のプロセスにおける「経済」という概念の変遷」 『日本研究』 31: 159-190.
- 中江和恵 (1982) 「福沢諭吉における発達と教育: 明治初期を中心にして」 『教育科学研究』 1: 41-54.
- 長山泰介 (1983) 「情報という言葉の起源」 『ドクメンテーション研究』 33(9): 431-435.
- 平井一弘 (1999) 「福沢諭吉『増訂華英通語』の「音訳」と「義訳」」 『大妻女

子大学紀要. 文系』31: 65-105.

平井一弘 (2002) 「福沢諭吉『増訂華英通語』とハーバード版『華英通語』」『大妻比較文化: 大妻女子大学比較文化学部紀要』3: 106-115.

福田真人 (2008) 「明治翻訳語のおもしろさ」『言語文化研究叢書』7: 133-145.

北村彰秀 (2014) 「翻訳における芸術性の追求-ナイダ以後の聖書翻訳の動向と文質論争後の中国翻訳史を比較して」『翻訳研究への招待』No. 12: 141-154.

水野的 (2007) 「近代日本の文学的多元システムと翻訳の位相—直訳の系譜」『翻訳研究への招待』(日本通訳学会翻訳研究分科会): 3-43.

柳父章 (1982) 『翻訳語成立事情』, 岩波書店.

古野ゆり (2002) 「日本の翻訳:変化の表れた1970年代」『Interpretation』(2): 114-122.

[Abstract]

Creation as Translation Art

-Exploring the Viewpoint about Translation of Modern Japan-

Lee, Ju-Ri-Ae

(Ewha Womans University)

It is said that the Japanese word “geijutsu” is a neologism created in the modern era to translate the Western term “liberal arts.” As Western civilization has continued its advance in modern times, it could be said that translating new concepts is a creative act akin to a liberal art in itself. These days, whether to translate various academic books and literary works in a literal or liberal manner is a source of unending controversy in modern translation theory as well, sparking many schools of thought on the best approaches to translation.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to explain new ideas in the course of translation has prompted the advancement of thought in translation and spurred the growth of learning. However, in recent Japanese texts and translations, foreign-language words are frequently seen left as is, not even translated, with the transliterations conspicuous. The phenomenon is particularly prominent in fields such as fashion and IT, with the daring idea that leaving terms untranslated is more apropos to the global era becoming more entrenched. Translation is required for the diffusion of culture, and it is thought that the digestion and absorption of material into one's own nation enriches vocabularies and leads to cultural growth. This paper examines the creation of terms used to translate new concepts and translation approaches in modern Japan to debate the future state of translation.

▶ Key Words: art, the view point about translation, modern times, creative act,
translating new concept

▶ 주제어: 예술, 번역관, 근대, 창의적 행위, 신개념 번역

이주리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한일전공 조교수

julietlee@ewha.ac.kr

관심분야: 통번역 교육, 기사문 번역, 양태 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